

존 오스왈트 박사, 열왕기, 29집, 2부 열왕기하 22-23장, 2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그래서 그들은 Huldah로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알람 시계를 사용했습니다. 원한다면 Huldah가 알람 시계입니다. 이제 내 질문은 이 사람들이 왜 홀다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우림과 둠밈을 꺼내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사위였을 것이고, 큐브였을 것이며, 큐브의 다양한 면에는 흰색 면과 검은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들을 던져서 흰색 두 개를 얻으면 그것은 '예'이고, 두 개의 검은색을 얻으면 그것은 '아니요'이고, 검은색과 흰색이 하나 있으면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중에 에스라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급은 왕국 시대 초기의 다윗과 후기 사사기에 관한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빙고, 그렇죠.

그들은 왜 홀다로 갔나요? 홀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16절 이하입니다. 그녀는 단지 이것이 진짜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는 알 수 없다고 그녀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 왕이 읽은 책에 기록된 대로 이 곳과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모든 사람으로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므로 나의 진노가 이곳을 향하여 불타서 꺼지지 아니하리라. 와. 그렇다면 요시아가 실제로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나요? 우리는 이것을 살아남을 것인가? 알았어, 맞아.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내 예복을 찢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유다가 죄를 범하여 은혜를 잃었다는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그가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옳고 그른 것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내가 아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결과는 충분히 분명할 것입니다. 이제 홀대를 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으로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우상숭배에 대한 이 장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상숭배에 진노하시나요? 세계관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는 어떤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 요소를 포함한 이 우주가 존재하는 전부입니다.

아이돌은 왜 일을 하는 걸까?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과 일주일만 더 시간을 드린 것 뿐이에요. 사실과 전혀 반대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것은 우주가 존재하는 전부라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고, 신이 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동물에게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비에게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은 모두 마법적 조작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하는 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그게 아이돌이니까 믿거나 말거나요. 그 우상은 천연 재료로 만든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신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상 숭배는 거짓 세계관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십니다. 그는 우주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이 세상이고 세상이 신임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단하고 빠른 경계가 있듯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단단하고 빠른 경계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사람은 누구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을 모셔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추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수간은 신학적 진술이다.

나와 소 사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동성애 행위는 신학적 진술이다. 나와 다른 남자 사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근친상간은 신학적 진술이다. 나와 내 딸 사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소리로 들리나요? 정확하게.

성별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결혼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디자인하고 만든 경계. 동물과 성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존재의 다른 순서입니다.

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는 어느 지점에서나 자신의 세계를 교차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합니다.

경계는 일방통행이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멸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거짓 세계관의 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말하기 전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세계관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성경적인 것과 다른 것.

하나님은 세상이시거나,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선택하세요. 현대 이교는 이러한 조각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것보다도 우상숭배적입니다. 나는 우주를 조작함으로써 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진짜 남자라는 걸 느껴야 해요. 나가서 BMW를 사세요.

내가 진짜 여자라는 걸 느껴야 해요. 가서 새 옷을 잔뜩 사세요. 바울이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이 옳습니다.

선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원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좋아, 거기로 끌려가는 중이야. 이제 홀다가 당신 요시야는 이런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안 돼? 19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마음이 반응하여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졌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까? 민족의 죄.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미국의 죄 때문에 얼마나 자주 눈물을 흘렸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na, na, na라고 말합니까? 문제의 일부는 우리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글쎄요, 저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렇습니다. 좋은 삶은 우리의 서로의 일부입니다.

그리하여 내 백성의 죄로 인해 참으로 상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제단 곁에 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3절. 주님 앞에서.

아마도 그것은 희생 동물을 둘로 나누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이로 걸어가며 “하나님이시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어길 경우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와.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강한 단어입니다. 조심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 계명들에 관하여 내 자신을 삼가 지키겠습니다.

조심히 지켜내겠습니다. 나는 이것들에 관해 나 자신을 계속 관찰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굳게 지키리라.

자, 이 마지막 문장은 내가 열왕기 주석을 작업할 때 나에게 떠오른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NI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자. 불행히도 NLT는 이에 동의합니다. 모든 백성은 언약에 맹세했습니다.

ESV와 NRSV는 모든 백성이 언약에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ASB는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은 그들이 언약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언약을 맺은 사람이 바로 왕임을 주목하십시오. 3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대신하여 계약을 맺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맹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옆에 서서 그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갈 건데 여기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손을 보여주겠다. 다음 장인 23장에서 그의 개혁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조치가 왕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듣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와. 아무리 좋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성약을 맺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얻으실 예정이었습니다. 아니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므낫세의 죄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므낫세는 당시 곱팡이에 사용된 염료였습니다. 그는 금속을 부어넣는 주형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은 아름다운 일이었으나 국민에게 파급되지는 못했습니다.